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기억의 재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History as Media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Memory : Focusing on the Prime-time Television News Reports Related with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저자 (Authors)	주재원 Jaewon Joo
출처 (Source)	한국언론정보학보 , 2015.6, 9-32(24 pag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 2015.6, 9-32(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언론정보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6155
APA Style	주재원 (2015).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기억의 재현. 한국언론정보학보, 9-32
이용정보 (Accessed)	전남대학교 168.131.53.*** 2020/01/21 14: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매체 서사로서의 역사와 집합기억의 재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상파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주재원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미디어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는 개인의 제한적 기억을 보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특히 매스미디어는 사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낸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매스미디어는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사인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소시민들의 일상에서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기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매개된 집합 기억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여 오늘날 5·18이 어떤 기억으로 재현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뉴스가치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에 대한 뉴스가치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정치적 이슈에 따라 가변적 뉴스 소재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 분석을 통해 5·18 관련 뉴스들이 관행적으로 보도되고, 연성화(softening)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KEYWORDS 집합기억, 매체서사, 텔레비전 뉴스, 5·18 민주화운동, 뉴스가치

* 이 논문은 2014년 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jwjoo@handong.edu

“5월 8일은 기억의 날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한 사건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기념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극복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 맹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과거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1985년 5월 8일 독일 패전기념일을 맞아 서독 연방의회에서 행해진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¹⁾의 연설 중 일부

1. 들어가며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낸 이미지 등을 끄집어내는 일련의 행위다(Hirsch, 1995, pp.13-15).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손상되기 쉽다(Glass, 20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일부는 지워지고, 강화되고, 왜곡되기도 한다. 이러한 파편화된 사적 기억의 조각들로 공적 기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억들을 이어 붙이기 위한 아교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상 혹은 망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으로 인해 집단의 기억은 삼시간에 왜곡될 수 있다. 기억은 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기억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박스(Halbwachs, 1985)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들의 사적인 기억조차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지며 따라서 기억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성립한다. 즉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는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²⁾’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유된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lbwachs, 1985).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기억’이라 일컫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억은 모든 사람의 일상적 실천(the practice

1) 제6대 독일 대통령(1984.07~1994.06)

2) 알박스의 ‘mémoire collective(collective memory)’라는 용어는 직역 형태인 ‘집합된, 모아진 기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서강대 사회학과 김무경 교수나 서양사 연구자 전진성 교수 등은 집단의 정체성으로서 기억의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단 기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민 끝에 직역 형태에 가까운 ‘집합기억’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of everyday life) 가운데 형성된다(권귀숙, 2001).

현대사회에서 일상적 실천의 상당 부분은 대중문화에 의해 구성되는데(Silverstone, 1994), 특히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영상 미디어는 기존 인쇄 미디어의 이성적/사실주의적 재현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 대한 다층적인 경험을 서술한다(Rosenstone, 1995). 이러한 환경에서 집합기억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은 개인의 제한적 기억을 보조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기억을 공적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즉,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사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낸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매스미디어는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사인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이동후, 2003).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사 재현의 기본 원리다. 실버스톤(Silverstone, 1999)은 이러한 집합기억을 ‘매개된 기억(mediated memory)’이라 정의한다. 즉, 집합기억은 미디어 생산물의 전제 조건이자 미디어 생산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기억은 경험의 구성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코 순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스톨텐(Sturken, 1997)은 집합기억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적 기억’이라는 용어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텔레비전, 사진 등의 집합기억을 구성하고 공유하게끔 하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집단의 기억이나 전통을 새롭게 상기시키고 재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실버스톤(Silverstone, 1999)의 주장대로 매개된 사회적 기억은 투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의 장은 일상의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데, 각종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미디어는 집단이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할 것인가에 더욱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이동후, 2003).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가 범람하고 있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소시민들의 일상에서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기제로 존재한다(Silverstone, 1994). 텔레비전은 카메라를 통한 진실의 신화(myth)를 만들어 내고 ‘의례적 달력(ritual calendar)’에 따라 집합기억을 구성해가며, 스스로에게 집합기억을 재구성하는 서사적 역할을 부여하고 정당화한다(Zelizer, 199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매개된 집합기억을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하여 역사적 사건이 어떤 기억으로 재현되고 재구성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집합기억 생산 주체인 매스미디어, 그 중에서도 지상파방송 3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으로 얼마나 재현이 되고 있으며, 그것의 뉴스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관련 뉴스 보도들은 어떻게 담론화되어 새로운 집합기억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집합기억과 역사의 재구성

전통적으로 기억은 역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문적인 연구와 지식담론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다(이기형, 2010).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란 개념은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의 연구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기억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심리적 현상을 일컫는 의미로 제한되었다. 만약 기억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관련된 개념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국가, 계급, 사회, 문화 등 집단적 주체와 관련된 역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전진성, 2005). 따라서 기억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이나 사회학이 아닌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등의 고유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기억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알박스의 '집합기억' 개념은 사실 그의 스승이었던 뒤르켐의 '집합 의식(collective conscience)' 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Olick, 2007). 따라서 알박스의 집합기억 연구는 사회적 기억 자체의 사회적 구성 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공유된, 과거의 상징과 의미로서의 '집합 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s)'도 주요하게 다룬다. 집합기억과 집합 표상은 문화적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 즉, 집합기억은 그 자체로 고유한 사회적 사실을 형성한다(Olick, 2007). 그리고 기억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사실은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본래 역사적인 것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역사에 대한 기억이나 의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전진성, 2005).

이러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가 재구성되는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이다(권귀숙, 2006). 즉, 홉스봄의 주장처럼 전통이 재창조되는 과정에는 지배체제의 이해관계와 정치권력이 개입되는 것이다. 모리스 스즈키(Morris-Suzuki, 2005)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사진이나 이야기, 뉴스 영상, 만화 그리고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역사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낸다. 즉,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이다. 알박스에 의하면 기억은 과거사의 자동적인 재생물이 아니라, 마치 방아쇠와도 같은 구실을 하는 외적 자극에 힘입어 되살려진다(Halbwachs, 1985). 여기에서 개입하는 외적 자극의 예를 알박스는 기억 주체와 관계를 맺은 '타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지만(김영범, 1999), 오늘날 기억을 되살리는 외적 자극의 역할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의하는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은 문화적 실천 행위이자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로 볼 수 있다(김영범, 1998). 집합기억과 역사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집합기억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 둘째, 기억과 역사가 상호 대립하는 경우 셋째, 기억과 역사가 상보적 관계인 경우 넷째, 역사가 집단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집합기억과 역사의 관계는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된 집합기억이 역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박스가 역사를 인간의 기억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실들의 집성으로 정의한 것과 유사한 접근법이다(Halbwachs, 1980).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과 관련된 구성원들과 관찰자들에 의해 지각되는데 이 중 일부가 사적 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사적 기억의 일부가 모여 역사적 사실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억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저장된다. 이 수준에서 보면, 기억은 역사를 위한 경험적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역사로 귀결되는 일방적 관계가 된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조차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합기억은 객관성의 체로 걸러져야만 한다(최호근, 2003).³⁾ 이러한 집합기억의 주관성과 재구성 가능성은 역사학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학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집합기억이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는 의미가 아닌 현재의 사회적 맥락에서 재구성되는 행위로 봄으로써 조작되거나 전유되기 쉬우며, 주기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Nora, 1989) 집합기억의 사회적 기능이나 구성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집합기억을 과거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서술하는 현재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존재하는 하나의 담론(discourse)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후, 2003).

반면 기억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충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억이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수립되는 정체성과 관계하는데 반해,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의 규명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최호근, 2003). 기억이 연속적 계기를 강조하는데 반해 역사는 단절적 국면을 강조한다거나, 기억은 특수성을 지향하는 반면 역사는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Halbwachs, 1980).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기억은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역사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유된, 일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최호근, 2003). 특히 역사 연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

3)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R. Browning)은 그의 에세이 “German Memory, Judicial Interrogation,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Writing Perpetrator History from Postwar Testimony”에서 독일의 101 경찰대대가 1942년 폴란드의 요제푸프에서 자행한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후, 2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던 대대원들 가운데 125명의 기억이 특정 측면과 관련하여 억압되거나 망각되고, 또 상이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제목을 딴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라고 표현하였다.

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역사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실들을 강조-종속-배제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등장했다. 즉, 역사에 접근하는 것은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놓고 상충하는 권력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과거를 구성하는 담론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Jenkins, 1991). 특히 역사가 힐버그(Hilberg, 1988)가 아우슈비츠에 대한 예를 통해 기억과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권력에 의한 민중의 대량 학살과 같은 집합기억은 역사로 전환되는 순간 절대적 공포와 무력감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기억될 수는 있지만 역사의 형태로 재현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Hilberg, 1988). 이것은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를 과거 현장에 있었던 민중들의 기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3. 매개된 집합기억과 문화정치로서의 5·18

그렇다면 집합기억은 어떻게 매개되고 역사화되는가? 버크(Burke, 1989)는 집합기억의 매개체를 구술, 문서, 이미지, 행위, 공간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각 영역에 따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문화와 결부됨을 지적한다. 매개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은 첨가되고 어떤 내용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귀숙, 2006). 즉, 기억이 역사화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용과 배제의 과정이 개입된다. 수용은 기억된 것에 대한 기억이자 긍정이며, 배제는 기억된 것에 대한 망각이자 부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과 배제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권력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날의 역사는 논증(argument)과 서사(narrative)라는 상반되는 방식에 의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다. 논증이 역사적 사건을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서 찾는 역사 기술 방법이라면, 서사는 특정 기억들에 대한 배제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적극적 망각이라는 반의미화 작용을 통해 그럴 듯한 이야기로 포장된다(최호근, 2003). 특히 신문, TV 등 매스미디어의 뉴스나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인증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권귀숙, 2006).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재현하는 집합기억의 역사화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하나의 정형화된 역사로 만들고자 하는 미디어의 서사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물론 각각의 미디어는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과 기억의 저장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특성을 전제하는 것이 미디어와 기억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Morris-Suzuki, 2005).

수많은 뉴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텔레비전은 핵심적인 정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보여 준다. 텔레비전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기억을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로 과거를 기억하는 서사가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 왔다(이기형, 2010).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보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대중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unter & Winstone, 1993).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의 기능에 대해 건틀릿과 힐(Gauntlett & Hill, 1999)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수단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 연구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대중의 지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Harrison, 2000). 텔레비전 뉴스는 현실 세계의 재현이며 모든 재현은 선택적이다(Downing & Husband, 2005). 텔레비전 뉴스가 재현이라는 방식을 통해 신화화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뉴스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재생산 시스템이 작동한다. 특히 닫힌 생산의 메커니즘 속에서 뉴스 콘텐츠는 개별적 뉴스 보도로 한정되지 않고 뉴스 제작 관행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van Dijk, 1988). 관행은 주요 뉴스 항목 선정과 그러한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뉴스 제작자/게이트키퍼들 사이에 적용되는 공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irsch, 1977).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재)생산되는 역사의 기억은 관행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주류 세력의 역사 인식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와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을 쟁취한 주류 세력은 언제나 과거와 역사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 왔다(Kaye, 1991). 이 과정에서 '해석으로서의 역사'와 '동일화로서의 역사'가 상호 충돌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 자체는 시대와 함께 변화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Morris-Suzuki, 2005). 즉, 매스미디어, 특히 영상을 매개로 하는 미디어는 특정한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동일화로서의 역사'로 치환하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데, 텔레비전과 같은 일상적 영상 미디어는 이러한 문화정치적 도구로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한 선, 2012; Kaye, 1991; Morris-Suzuki, 2005). 매스미디어를 통한 과거의 재구성은 또 다른 유형의 기억의 정치다. 특히 역사적 사건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어질수록 직접적인 경험이 어려우므로 매스미디어의 재현과 같은 문화적 표상물은 과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권귀숙, 2006). 따라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재현을 분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재구성되는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역사

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UNESCO)는 5·18 민주항쟁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18 민주항쟁이 한국의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공헌한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오승용, 2012: 23).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5·18은 정치적 이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받는다. 특히 1980년 5월 18일 이후 보수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된 5·18에 대한 왜곡담론은 인터넷 매체의 시대인 오늘날 ‘시스템클럽’이나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은 한국 사회 좌우 진영의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집합기억은 정치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측면이 많다(한선, 2012).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적으로 재구성되어 온 집합기억으로서의 5·18 민주항쟁에 대한 지상파 텔레비전 뉴스의 서사 전략과 재현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5·18이 갖는 의미와 위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4. 매체서사의 재생산 과정과 함의

기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애초에 기대했던 과거의 ‘민주화’가 아니라 과거의 ‘사유화’ 내지 ‘파편화’를 불러오거나, 혹은 정반대로 보수·복고적 과거 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의 과잉은 역사에 대한 신뢰감이 아니라, 오히려 변혁을 도모하는 정책의 퇴조를 나타내는 증표일 뿐’이라는 마이어(Maier, 1993)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나 권력 집단이 기억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며 때로는 기억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망각의 행위(acts of oblivion)’를 행사하기도 하므로(Burke, 1989), 기억은 하나의 사회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합기억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기억의 진실성 여부보다 지금 현재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생산된 5·18 관련 방송 뉴스를 분석하는 것은 5·18에 대한 현재적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방송 미디어의 5·18 관련 서사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2000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방영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5·18과 관련된 뉴스 콘텐츠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보도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념일 당일인 5월 18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뉴스가치를 평가하고 주요 키워드를 분석했고, 세부 보도에 대해서는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5·18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어떻게 서사화된 역사로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 5·18 관련 뉴스의 가치

뉴스가치의 중요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신문이 공간의 배치(hierarchy of space)를 통해 뉴스가치를 평가한다면 방송 뉴스는 시간의 배치(hierarchy of time)인 뉴스 순서에 의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스(Williams, 1974)가 지적한 바대로 텔레비전 뉴스는 하나의 흐름(flow)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타 매체와는 달리 선상 배열(linear arrangement)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뉴스의 순서는 가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른 매체에 비해 시간적 제약이 많은 방송 뉴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치가 높은 뉴스일수록 방송 전반부에 배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5월 18일에 방영된 5·18 관련 뉴스가 어떤 가치로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가치 포인트(newsworthiness point)’ 개념을 차용하였다(Joo, 2012). 과거 뉴스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뉴스의 배치 순서를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전체 뉴스 아이템의 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20쪽지의 뉴스 중 두 번째에 배치된 뉴스와 전체 40쪽지의 뉴스 중 두 번째에 배치된 뉴스를 동일한 뉴스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가치 포인트 산출 공식을 도입하였다.

$$\text{뉴스가치 포인트} = \frac{\text{해당 뉴스의 배치 순서}}{\text{전체 뉴스아이템의 수}}$$

이 산출 공식에 따르면 전체 20쪽지로 구성된 방송 뉴스 중 열 번째로 배치된 뉴스 아이템의 뉴스가치 포인트는 .500이 되고, 40쪽지로 구성된 방송 뉴스에서 10번째로 배치된 뉴스 아이템의 포인트는 .250이 된다. 즉, 뉴스가치 포인트가 0에 가까울수록 뉴스가치가 높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뉴스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의 5·18 관련 뉴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 방송사별/연도별 뉴스가치 분석 결과

	KBS News 9	MBC 뉴스데스크	SBS news 8	연도별 뉴스 건수 및 뉴스가치 평균
2000 (김대중) 5·18 20주년	3건 (.269) • 5·18 특별법 조속 제정 • 화해, 성숙의 5·18 • 5·18 특파원 리포트 영문판 발간	4건 (.288) • 김 대통령 5·18 묘역 국립묘지로 승격 밝혀 • 5·18 묘역 세계 인권 운동가들의 민주 성지로 각인 • 사진으로 5·18 영상 참회록 작성 • 5·18과 미국 관계 해제된 기밀문서로도 분석 미흡	2건 (.432) • 참배객 줄이어 • 5·18특별법 제정	9건 (.314) • 김대중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 참석
2001 (김대중)	2건 (.141) • 5·18 21주년 기념 행사 열려 • 5·18 진압군 민간인 사살 양심선언	3건 (.677) • 5·18 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식 유족 5월단체 회원 불참 •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법, 여야 이견 4년째 미뤄져 • <5월의 시> 등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공연 잇따라	1건 (.316)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6건 (.438)
2002 (김대중)	1건 (.428) • 5·18운동 22주년, '님은 가도 님은 남아'	2건 (.465) • 광주 망월동 5·18 묘지 광주민주화운동 22주년 기념식 • 바필드 5·18 당시 주한미군 상사 진압 훈련 증언	1건 (.900) • 5·18 민주화운동 22주년...추모열기 고조	4건 (.565)
2003 (노무현)	3건 (.303) • '5·18 정신 계승 국민 통합' • 한총련 시위로 기념 행사 차질 • 23년이 지났지만 묘지는 눈물바다	3건 (.077) • 한총련 노대통령 굴욕 외교 사과 요구 기습 시위 • 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치사 • 5·18 끝나지 않은 아픔/ 손금순 행불자 가족	2건 (.075) • 5·18 기념식, 다양 한 추모행사 이어져 • 한총련 시위로 5·18 기념식 차질	8건 (.161) •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2004 (노무현)	1건 (.379) • 盧 대통령 "지역 분열 넘어 화합·상생의 시대로"	1건 (.290) • 노무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참배 행렬	2건 (.359) • 노 대통령 "5·18 정신 계승해 분열 극복" • 광주 곳곳서 5·18 추모행사 개최	4건 (.347)

	KBS News 9	MBC 뉴스데스크	SBS news 8	연도별 뉴스 건수 및 뉴스가치 평균
2005 (노무현)	2건 (.150) • 盧 대통령, “시민사회 대안 내놓는 참여해야” • 25년 지났지만 덮여 있는 쟁점들	2건 (.056) • 노무현 대통령 5·18 승리의 역사 • 5·18 묘역 찾은 여야 지도부, 한결같이 5·18 정신의 계승	2건 (.056) • 노 대통령, “대안 있는 시민 참여 필요” • 5·18 끝나지 않은 ‘진실’	6건 (.087)
2006 (노무현)	1건 (.680) • ‘5·18 정신’ 계승해야	1건 (.333) • 5·18민주화운동 26주년 기념식	1건 (.222) • 노 대통령 “관공의 문화 만들자”	3건 (.412)
2007 (노무현)	3건 (.360) • 노 대통령 “지역주의 후퇴, 국민이 헤아려 달라” • 5·18 27주년 기념식 “5월 영령 추모” • 노래로 돌아본 ‘5·18 민주화 운동’ 역사	2건 (.204) • 노무현 대통령 “지역 주의 부활” 파문 • 5·18 27주년, ‘남겨진 자들의 슬픔’	3건 (.109) • 노 대통령 “정치권 지역주의 회귀 안 된다” • 그날의 이름 되새기며 … 5·18 엄숙한 추모 • 국가기록원, 5·18 관련 문서 일반인에 공개	8건 (.228)
2008 (이명박)	2건 (.375) • 이 대통령 “5·18 정신, 통합 에너지로 승화” • 5·18 기념행사, ‘민주주의 축제 자리매김	2건 (.306) • 이 대통령 “5·18 정신은 국가 발전 에너지” • 5·18 추모행렬	2건 (.075) • 이 대통령 “5·18 정신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 민주영령 추모 발걸… 참배객 8만 명 ‘역대 최고’	6건 (.252) •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2009 (이명박)	1건 (.481) •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 열려	1건 (.517) • 5·18 29주년 추모 기념식 열려	1건 (.792) • 5·18 29주년, 갈등과 무관심 속 빛바랜 기념식	3건 (.597)
2010 (이명박) 5·18 30주년	2건 (.327) •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 일부 마찰 • [이슈&뉴스] 5·18 민주화운동 30년, 과제는?	4건 (.283) • 5·18 외교문서 “美, 군 투입 필요성 이해” • 신군부, 美에 정치 일정 사전 통보 •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반쪽 진행 • 5·18 기념식 서울 행사…빛바랜 추모	3건 (.217) • 30돌 맞은 5·18… 사라진 노래, 돌로 나뉜 기념식 • 5·18 민심 겨냥 ‘정치인 총출동’… “현 정부 응졸” • 다시 찾은 ‘그곳’… 5·18 경험자들 생채기 ‘뚜렛’	9건 (.271) • 5·18 30주년
2011 (이명박)	2건 (.315) • 5·18 기념식 엄수… “5·18 정신 계승·발전” • 1980년 5월의 상처… ‘멈춰 버린 삶’	1건 (.655) •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기념식 열려	2건 (.700) • 5·18 31주년 기념식 서 다시 부른 ‘임행진곡’ • 5·18 민주화 운동, 영화·연극 등으로 재조명	5건 (.537)

	KBS News 9	MBC 뉴스데스크	SBS news 8	연도별 뉴스 건수 및 뉴스가치 평균
2012 (이명박)	1건 (.609) • 5·18민주화운동 32주기...국내외 참배객 발걸음	1건 (.522) • 5·18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희생자 추모 행사	1건 (.952) •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 연습... 2000여 명 참석	3건 (.694)
2013 (박근혜)	2건 (.088) • 박 대통령 "5·18 정신, 국민 통합으로 승화"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로 빛바랜 기념식	2건 (.425) • 차 대통령, 현직 대통 령으로는 5년 만에 5·18 기념식 참석 • '임을 위한 행진곡' 논 란...따로따로 5·18 기념식	3건 (.263) • 박 대통령 "5·18 정신 국민 통합으로 승화해야" •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반쪽 기념식 • 민주화가 왕따라는 뜻? ...역사 교육 부실	7건 (.259)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 •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
2014 (박근혜)	1건 (.458) • 노래 때문에...5·18 기념식 올해도 '반쪽 행사'	1건 (.840) •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 개최 ...야당, 유족 불참	1건 (.455) • 5·18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반쪽짜리 기념식	3건 (.584) • 박근혜 대통령 불참
방송사별 평균	27건 (.321) • 대통령 관련 뉴스 9건 (.052)	30건 (.354) • 대통령 관련 뉴스 8건 (.063)	27건 (.318) • 대통령 관련 뉴스 6건 (.045)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월 18일에 지상파방송 3사에서 보도된 5·18 관련 뉴스의 뉴스가치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뉴스가치 포인트의 평균값은 방송 3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BS(.316), MBC(.337), SBS(.313)]. 그러나 연도별/정권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방송사별 뉴스가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3년간 5·18 관련 뉴스에 대해 지상파 3사 중 가장 높은 뉴스가치를 부여했던 KBS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 번도 뉴스가치 최고점을 차지한 적이 없을 정도로 5·18 관련 행사에 대해 낮은 뉴스가치를 부여했다. 특히 2004년 12번째, 2005년 5번째, 2006년 18번째 등의 뉴스 배치는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2006년에는 독일월드컵 관련 “다혈질 앙리, 밀착 수비로 괴롭혀라”, “파워 엔진’ 박지성 합류 늦어지나”, “초·중·고생, 키 줄고 체력 저하” 등과 같은 뉴스들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나 중대 발언 여부가 5·18 관련 뉴스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2000년을 비롯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기념일에는 평균적으로 뉴스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첫 행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담화 자체에 뉴스가치를 두는 한국의 언론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

다. 특히 방송사별로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사 참석에 초점을 맞춘 뉴스는 KBS 9건(33%), MBC 8건(28%), SBS 6건(22%)로 5·18 관련 전체 뉴스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뉴스가치는 3사 각 .052, .063, .045로 대부분 톱뉴스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를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만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뿐 이후 4년간은 불참했다. 유일하게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2008년 당시 방송 3사 평균 .252의 뉴스가치 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이듬해인 2009년에는 각 방송사가 1건씩의 단신으로만 처리하여 .537의 포인트를 나타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5·18 30주년을 맞이했던 2010년에는 일시적으로 .271로 상승하였지만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37과 .694로 5·18 관련 뉴스가 단신 수준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5·18 관련 뉴스의 가치 포인트는 급격히 상승하여 평균 .259를 기록하였고, 특히 KBS는 .088을 기록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라기보다 새로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와 담화문 등에 초점을 맞추는 권력 지향적 보도 행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임기 말까지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이었던 2007년의 뉴스가치는 3사 평균 .228로 임기 첫해였던 2003년의 .16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기 말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뉴스의 수와 가치가 급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대중(2002년 4건, .565), 이명박(2012년 3건, .694)).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여부, 담화문의 정치적 쟁점화 여부,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뉴스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은 5·18이라는 집합기억이 방송 매체를 통해 내러티브적으로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들—특히 정치적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역사로서의 5·18을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5·18 관련 뉴스의 뉴스가치가 명백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2000년 이후 5월 한 달 동안 생산된 관련 뉴스의 보도 횟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SBS는 2012년과 2014년에 1건의 관련 뉴스만을 보도했으며, 그마저도 뉴스 후반부에 단신으로 처리했다. MBC 역시 2012년과 2014년에 1건의 관련 뉴스만을 보도했으며, KBS도 2012년과 2014년에 단 1건의 5·18 관련 뉴스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5·18에 대한 방송 3사의 뉴스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구도에서 5·18에 대한 보수정당의 가치평가가 매우 절하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상파방송들의 5·18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절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행화된 뉴스 소재로서의 5·18

지상파 3사의 5·18 관련 뉴스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매년 5월 중에 보도된 5·18 관련 뉴스들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5·18 관련 뉴스 담론 생산 메커니즘에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에 대한 지상파방송 3사의 보도 행태가 매우 관행화(routinized)되어 5·18의 역사적 가치를 떨어트리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 3사의 5·18 관련 뉴스는 ‘행사’와 ‘기념식’에 집중했는데, 이들 뉴스는 놀라우리만치 흡사했고 심지어 매년 거의 동일한 멘트가 사용되기도 했다. 5·18 전야제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 방송사별 5·18 전야제 보도 내러티브

	KBS	MBC	SBS
앵커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29주년을 맞습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지금 광주 금남로에는 5·18 정신을 되새기는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혜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26주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지금 전야제 행사가 한창인데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기자.	내일(18일)은 5·18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5·18 묘역에는 하루 종일 참배 행렬이 줄을 이었고 지금은 전야제가 한창입니다.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입니다.
현장 기자	네, 저는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추모 열기가 아주 뜨거워 보이는군요?	지금 시간이면 전야제 열기가 대단하겠군요.	
현장 기자	네, 그렇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곳 광주시 금남로 일대는 오늘도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5시간 넘게 펼쳐지고 있는 전야제 행사는 이제 어울림 한마당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5·18 26주년 전야제 행사는 밤 9시를 넘기면서 절정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진혼 행사가 막을 내리고 26년 전 5월 항쟁을 그대로 재현한 재현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7년 전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던 광주 금남로가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전야제 본 행사는 5월 영령을 위로하는 시민들의 힘찬 함성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 인터뷰	조승헌(대학생): 퍼포먼스 보면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	김양수(시민): 참여해야지, 참여해야지. 광주 시민이라면 전부 참여해야지.	장경숙(시민):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 줬던 것을 체험하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내일은 5월 영령들의 넋이 잠든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국립 5·18묘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5·18 26주기 기념식이 열립니다.	내일 오전 이곳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주년 5·18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클로징 멘트	지금까지 5·18 29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금남로에서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C 뉴스 김철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C 뉴스 이계혁입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방송 3사가 5·18 전야제를 보도하는 태도는 지극히 정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튜디오 앵커가 광주 현장의 증계차를 연결하고 그곳에서 현장의 기사는 거의 흡사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읽는다. 이후 미리 섭외한 현장의 시민과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녹화를 해 둔 시민과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열리는 5·18 기념식에 대한 소개를 한 뒤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5·18 전야제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문화행사로 정형화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광주’, ‘지역’, ‘지역민’, ‘시민’, ‘기념식’ 등과 같은 키워드를 빈번하게 생산하면서 마치 5·18이 광주 지역민들만의 기념행사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광주’라는 지역 명칭은 지난 14년간 KBS에서 76회, MBC에서 53회, SBS에서 92회 언급되었고, ‘지역’이라는 용어도 각 19회(KBS), 8회(MBC), 24회(SBS) 생산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각 18회(KBS), 10회(MBC), 25회(SBS) 언급된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5·18 민주항쟁의 광주화/지역화 구도는 ‘우리’가 아닌 ‘그들’의 범주에 국한시킴으로써 5·18의 정치적 위상과 의미를 훼손하고 축소하는 미디어 담론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승용(2012)의 지적대로 5·18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과 편향 담론을 부추기는 숨은 동력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군사정권하에 통제된 언론들이 생산했던 ‘광주 지역의 폭동’ 담론은 국가기념일 제정과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적 성과 저편에서 여전히 ‘광주 지역만의 항쟁’ 담론으로 포장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5·18에 대한 관행적 뉴스 생산 행태는 방송 구성의 정형성뿐만 아니라 1차적 게이트키퍼라 할 수 있는 일선 기자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3년과 2004년 5월 17일 5·18 전야제 KBS 뉴스 스크립트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단어의 배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BS News 9〉, 2003. 5. 17)

23년 전 그 현장,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는 지금 그날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촛불서약식과 평화서약식 등을 통해 후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한 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네 번째 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야제는 특히 (차량시위 재현과 주먹밥 먹기 등) 전국에서 온 참배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5·18정신과 상황을 체험하며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News 9〉, 2004. 5. 17)

24년 전 현장 그곳,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는 지금 평화와 연대를 주제로 그날의 빛을

기리는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섯 번째 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야제는 전국에서 온 참배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5·18정신을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뉴스 담론의 생산은 뉴스 제작 관행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담론 생산의 메커니즘 속에서 뉴스 콘텐츠는 개별적 뉴스 보도로 한정되지 않고 뉴스 제작 관행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Tuchman, 1978; van Dijk, 1988).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 주간(weekly), 월간(monthly)으로 다루어지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생소한 사회현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뉴스 생산 관행에 맞추어 보도되는 뉴스 생산의 ‘관례화(routinization)’다(Harrison, 2000). 뉴스 제작에서 관행은 “패턴화된, 관례화된, 반복적인 일의 연장이며 매체 종사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정의된다(Shoemaker & Reese, 1996: p.105). 이러한 관습들은 뉴스 제작 조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직 레벨에서 지지들을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되어 왔다(Shoemaker & Vos, 2009). 게다가 관행은 주요 뉴스 항목 선정과 그러한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뉴스 제작자/게이트키퍼들 사이에 적용되는 공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Hirsch, 1977).

사실 뉴스 기관과 뉴스 제작자들은 뉴스로 만들어 내야 할 압도적인 양의 사건들과 정보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행은 엄청난 분량의 뉴스 선별 과정에 드는 노력을 절감해 준다. 하지만 관행적인 뉴스 제작 환경에서는 질이 낮은 뉴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골딩에 의하면 관습은 뉴스 판단의 임무를 단순화시키는데, 더욱 접근이 용이하며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고 그 자체로도 보도할 수 있는 사건들은 관례적으로 ‘news story’라고 불린다(Golding, 1981, p.75). 터크만은 ‘전형화(typification)’라는 작업이 “원재료가 기자/뉴스 기관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사건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Tuchman, 1997, p.188). 기자들이 거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고 관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 제작 관행의 정형화는 뉴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며,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제작의 임무를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Golding, 1981).

집합기억이 매체 서사를 통해 역사화되는 과정에서의 정형화는 결국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5·18을 ‘과거’, ‘당사자’ 중심이 아닌 ‘현재’, ‘생산자’ 중심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념식이나 전야제와 같은 ‘행사’ 중심의 뉴스 보도가 5·18

관련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5·18에 대한 치열한 진실 규명이나 잊혀진 기억의 복원에 집중해야 할 언론이 기념행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념일의 정신은 전시장의 박제처럼 전시만 하는 소위 ‘기념일 저널리즘(Anniversary Journalism)’(Kitch, 2002)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본질은 망각하고 행사 자체만 기억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역사 왜곡 혹은 반역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상적 매체로서의 텔레비전 뉴스는 집합기억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함에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뒤섞어 놓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역사적 관점이 아닌 당대 정치권력에 의해 평가받고자 하는 듯하다. 관례화되어 매너리즘에 빠진 기념일 저널리즘은 매년 중계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보도하던 5·18 전야제마저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⁴⁾. 특히 이명박정부에서부터 5·18 기념일 행사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족들과 야당 인사들은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언론의 초점은 오로지 공식 행사와 그곳에 참석한 정치인들에 맞춰져 있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집합기억의 달력화를 초래하는데, 달력은 종종 기억 공동체가 역사로부터 구성한 관습적인 지배서사를 압축/요약하는 역할을 한다(Zerubavel, 2006).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멀어진 기념행사는 뉴스 제작 관행에서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념일은 기억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념해야 할 역사적 사건의 기본 이념과 본질보다는 관행화/정치화된 행사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본래 의미를 축소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념행사로 재현되는 5·18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3) 5·18 뉴스의 연성화와 담론의 정치

5·18은 암울했던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된다. 5·18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시민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역사로서의 5·18은 이들의 집합기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언론이 5·18을 재구성하는 데는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5·18에 대한 역사적 재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5·18 관련 뉴스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저널리즘은 현재의 정치권력과 그들이 참석하는 행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4) KBS는 2012년과 2013년 5·18 전야제 관련 뉴스를 광주 지역 뉴스에서만 보도했고, SBS 역시 2011년 이후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도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야제 관련 뉴스를 단신으로 처리하다가 2012년부터 전국 단위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있을 뿐 5·18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5월 한 달 동안 보도된 5·18 관련 뉴스는 KBS 52건, MBC 58건, SBS 59건이었는데, 이 중 5·18 피해자들과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KBS 3건, MBC 2건, SBS 3건으로 총 8건으로 전체 뉴스의 4.7%에 불과했다.⁵⁾ 보도량이 극히 적은 것도 문제점이지만 이들에 대한 뉴스의 내용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논증과 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집합기억을 구성하는 한 축을 피해자들의 서사라 한다면 이를 통해 하나의 뉴스를 완성하는 또 다른 축은 기자들의 취재를 통한 논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다룬 뉴스에는 서사만이 존재할 뿐 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나 새로운 정보와 같은 논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을 잃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극대화된 클로즈업으로 재현하고,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뉴스에 슬픈 BGM(배경음악)까지 사용한다. 이러한 뉴스의 경향은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하는 한국의 방송 뉴스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감성으로 포장된 서사적 뉴스는 시청자들의 감정적 동요는 이끌어낼지 몰라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파급력을 갖지는 못한다(Bogart, 1980). 보가트(Bogart, 1980)에 의하면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는 일종의 드라마 장르와 같이 재미와 스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전통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감성적 뉴스 보도가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주요 사안이나 사건, 비극 등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감각의 과부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5·18 관련 보도에 방송 3사는 공히 자신들의 논조를 가지기보다는 당시 정권의 정치적 정체성을 투영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기념식 연설이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적이 없다. 그저 권력자들의 입만 쳐다보고 그대로 뉴스에 옮기는 식의 보도가 이어져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5·18 관련 뉴스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방송사별로 각 56회(KBS), 48회(MBC), 60회(SBS)의 빈도로 등장했는데, 이는 ‘기념식’과 ‘광주’라는 용어 다음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였다. 반면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설명하는 용어인 ‘상처’, ‘눈물’,

5) MBC: “5·18 끝나지 않은 아픔/손금순 행복자 가족”(2003. 5. 18), “5·18 27주년, ‘남겨진 자들의 슬픔’”(2007. 5. 18)

KBS: “5·18 아물지 않는 상처 22년째”(2002. 5. 17), “23년이 지났지만 모지는 눈물바다”(2003. 5. 18), “25년 지났지만 덮여 있는 쟁점들”(2005. 5. 18)

SBS: “5·18 25주년 ‘아물지 않는 상처’”(2005. 5. 16), “5·18 끝나지 않은 ‘진실’”(2005. 5. 18), “다시 찾은 ‘그 곳’...5·18 경험자들 생채기 ‘뚜렛’”(2010. 5. 18)

‘아픔’과 같은 단어들은 각 9회(KBS), 7회(MBC), 4회(SBS) 등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스에서 재현되는 5·18의 의미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 김대중정부 당시 5·18 정신을 설명하는 수사적 어휘는 ‘민주화’, ‘대화합’, ‘평화’, ‘광주’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노무현정부에서는 ‘지역주의 극복’, ‘용서와 화해’, ‘평화’, ‘민주주의’ 등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국가 발전 에너지로 승화’, ‘기념’, ‘행사’, ‘광주’, ‘갈등’ 등으로 핵심 의미가 큰 폭으로 바뀌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대통합’, ‘기념’, ‘지역’, ‘갈등’ 등의 수사적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주요 담론이 ‘민주주의’, ‘화합/화해’였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기념’, ‘지역’, ‘갈등’, ‘통합’ 등과 같은 담론이 주요 수사적 어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맥락에서 ‘화합’이라는 어휘가 ‘통합’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화합이 사회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화목을 강조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인데 반해, 통합은 사회집단이나 공동체에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담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5·18 정신을 설명하는 핵심 어휘의 변화는 결국 해당 정권의 주요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떤 배경에서 왜 이러한 의미가 강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보도는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연계하여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방송의 보도 행태는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5·18에 대한 집합기억을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 5·18 관련 보도의 수사적 어휘

	5·18에 대한 수사적 어휘
김대중정부	민주화, 대화합, 평화, 광주
노무현정부	지역주의 극복, 용서, 화해, 평화, 민주주의
이명박정부	국가 발전, 에너지, 기념, 행사, 광주, 갈등
박근혜정부	국민 대통합, 기념, 지역, 갈등

5. 나가며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비극적인,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18 민주항쟁이 35주년을 맞이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지한 절망적인 사실은 5·18과 관련된 뉴스의 양적, 질적 결핍이 아닌 35년 전 권력의 총칼 앞에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했던 언론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입만 바라보고 그들의 정치적 담론을 마치 5·18의 정신인 양 포장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와 중재자, 때로는 심판자의 정체성을 오가며 파편화된 5·18의 집합기억을 끌어모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5·18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5·18 당시 적극적인 왜곡 보도나 침묵으로 정치권력에 동조했던 언론의 암울한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 비판적 집합기억을 강조했던 하버마스(Habermas)는 가해자로서의 독일국민들이 쓰러린 집단 기억을 상기함으로써 보편주의적 헌법 원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정상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Buruma, 2002). 예컨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5·18의 피해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가해자 집단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가해자의 집단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으며⁶⁾, 책임의 인정과 함께 물질적 배상 및 보상, 재발 방지의 약속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이러한 동일시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최호근, 2003).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집합기억의 진정한 역사적 재구성고 그것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가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가감 없이 끄집어내어 그것과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기록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기억될 것이다. 어쩌면 세계시민이 공유하는 집합기억으로서의 5·18은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5·18 민주항쟁에 대한 한국 지상파방송 뉴스의 가치평가와 담론은 그것과 전혀 다른 대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5·18의 뉴스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정당의 집권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방송 3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정권의 입김에 취약한 KBS와 MBC

6) 애도(Trauer)라는 개념은 프로이트 학파의 일원인 미처리히(Mitscherlich)를 통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그 과거를 극복한다는 의미의 '애도의 작업(Trauerarbeit)'으로 발전하였다(Wagner, 1995; 최호근, 2003에서 재인용)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5·18민주항쟁의 뉴스가치가 하락하면서 뉴스 담론은 매우 관행화된 메커니즘에 의해 재생산된다. 소위 기념일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5·18은 그저 일 년에 한번 치르는 기념일에 불과하며, 5·18의 정신보다는 전시성 행사만이 ‘좋은 그림’으로 포장되어 안방으로 배달된다. 또한 5·18은 지속적으로 지역화되고 있으며, 광주와 광주 시민들만의 집합기억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35년이 지났지만 언론이 생산하는 5·18민주항쟁의 담론은 여전히 시민이 아닌 권력에 우호적이다. 5·18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합기억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매스미디어로 인해 파편화된 5·18의 기억은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다른 아닌 매스미디어여야 한다.

정치는 역사에 대해 우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 된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 기억이 하는 일이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기억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은 결국 정치적 자각의 행위로 수렴한다는 것이다(Benjamin, 1989; 최성만,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향후 5·18 관련 후속 연구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내재화된 권력관계의 수용과 그것을 통한 자기검열, 그리고 역사의식의 부재와 현장과는 동떨어진 보도 관행 등 이 모든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집합기억을 구성하는 매체 서사의 구성요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이 연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면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BS의 5·18 관련 보도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비극적인 역사를 잊어버리면 언젠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2010년 5월 17일 <SBS 8시 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했던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 씨와의 인터뷰 중

참고 문헌

- 강철수·윤석년 (2010).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5-39.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집 5호, 199-231.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157-211쪽).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영범 (1999).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대구대 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6호, 557-594.
- 양동복 (2012). 지상파라디오 콘텐츠 창구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78호, 45-73.
- 오승용 (2012). 오늘의 5·18: 쟁점과 진실. 오승용 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23-63쪽). 5·18기념재단.
- 윤영태 (2009). 5·18과 신문보도: 5·18 관련 신문 기사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언론정보학회 쟁점 세미나 발표문.
- 이기형 (2010). 영상 미디어와 역사의 재현 그리고 '기억의 정치학':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 기념 텔레비전 역사다큐멘터리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2권 1호, 57-90.
- 이동후 (2003).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1권 2호, 72-110.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 최성만 (2013). 벤야민에서 기억과 집단적 무의식. <현대사상>, 11호, 39-65.
- 최호근 (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집, 159-189.
- 한 선 (2012). 1980년 당시 언론의 5·18 항쟁 왜곡. 오승용 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115-164쪽). 5·18기념재단.
- Burke, P.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 Butler (Ed.) (1989),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pp. 77-96). New York: Basil Blackwell.
- Buruma, I. (1994).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정용환(역)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서울: 한겨레신문사.
- Downing, J., & Husband, C. (2005). *Representing 'Race'*. London: Sage.
- Gauntlett, D., & Hill, A. (1999). *TV living*. London: Routledge.
- Glass,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imagination*.
<http://indianapublicmedia.org/amomentofscience/the-relationship-between-memory-and-imagination>
- Golding, P. (1981). The missing dimensions: News media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hange. in E. Katz & T. Szecsko (Eds.) (1981). *Mass media and social change* (pp.63-81). Beverly Hills, CA: Sage.
- Gunter, B., & Winstone, P. (1993). *Television: The public's view 1992*. London: J. Libbey.

- Halbwachs, M. (1980). *The collective memory*. (F. Ditter et al., Trans.). New York: Harper & Row.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L. Coser,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2, 1941).
- Harrison, J. (2000). *Terrestrial TV news in Britain: The culture of produc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ilberg, R. (1988). I was not there. Berel Lang (Ed.), *Writing and the holocaust* (pp. 17-25). New York: Holmes & Meier.
- Hirsch, M. (1977). Occupation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models in mass media research: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in M. Hirsch, V. Miller, & G. Kline (Eds.) *Strategies for communication research* (pp. 13-42). Beverly Hills, CA: Sage.
- Jenkins, K. (1991). *Rethinking history*. 최용찬(역)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해안.
- Joo, J. (2012).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discrimination: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diversity in the Korea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news*. Doctoral thesi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Kaye, H. (1991). *The power of the past*. 오인영(역) (2004). <과거의 힘>. 서울: 삼인.
- Kitch, C. (2002). Anniversary journalism,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authority to tell the story of the american past. *Journal of Popular Culture*, 36-1, 44-67.
- Maier, C. (1993). A Surfeit of Memory, *History and Memory*. Studi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Past 5, (pp. 13.6-152).
- Morris-Suzuki, T. (2005). *The past within us*. 김경원(역) (2006). <우리 안의 과거: media, memory, history>. 서울: 휴머니스트.
- Olick, J. (2007). The politics of regret. 강경이(역) (2011).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 Rosenstone, R. (1995). *Revisioning history: Film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pa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Shoemaker, P., & Reese, S.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Shoemaker, P., & Vos, P. (2009). *Gatekeeping Theory*. New York: Routledge.
- Silverstone, 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김세은 (역) (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The Free Press.
- Tuchman, G. (1997).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in D. Berkowitz (Ed.), *Social Meanings of News* (pp.173-192). Thousand Oaks, CA: Sage.
- van Dijk, T. (1988). *News as discours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elizer, B. (1992). *Covering the body: The Kennedy assassination, the media and the shaping of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erubavel, E. (2006). Calendars and histo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national memory. in Jeffrey K. Olick (Ed.), *States of memory: Continuities, conflicts, and transformations in national retrospection* (pp.315-338). 최호근 외 (역).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 연구.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투고일자: 2015. 03. 31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6.

History as Media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Memory

Focusing on the Prime-time Television News Reports Related with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Jaewon Joo

Assistan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media, traditionally, serves to reinforce one's limited memory and transform those personal memories of society's members into collective memories. Notably, the mass media collects countless pieces of personalized memories for the creation of collective memories. Through the process of recollecting as well as recreating the past in the present, mass media exerts influence on the means the public appreciates and understands the history. Although numerous new medias like Internet overflows in today's society, television continues to stand firm as the salient means to construct the memories in daily live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televised news as the principal agent of memory producer to determine through which memories it recreates the 5·18 in today's media. The analysis of news values clarifies that every government placed distinctive news values on 5·18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Even so, such values were often fixed based on its relations to the existing political issues. Furthermore, through the discourse analysi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oday's coverage of 5·18 is softening and becoming conventional.

KEYWORDS collective memories, media narrative, media discourse, television news, May 18 Democratic Movement, news